

삼성전자, TV LCD 출하 100만대

6월 TV용 패널 월 100만대 돌파 ... 14개월 연속 LCD 매출 1위 행진

삼성전자가 6월 업계 최초로 TV용 LCD 패널 출하량 월 100만대를 돌파하면서 14개월 연속으로 LCD 전체 매출 1위 기록을 이어갔다.

삼성전자는 7월24일 발표된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2/4분기에 LCD 전체 매출이 1/4분기보다 9% 많은 36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14개월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고 7월25일 발표했다.

삼성전자는 또 2/4분기에 대형 LCD 매출은 31억7000만달러, 출하량은 1309만대로, 각각 11개월과 9개월 연속 세계 1위 기록을 이어갔다.

삼성전자의 2분기 TV용 패널 출하량은 1/4분기에 비해 34%의 성장을 기록했으며, 특히 6월 TV용 패널 출하량은 105만대로 월간 100만대를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6월은 물론 2/4분기 전체로도 1위를 차지했다.

한편, 삼성전자는 향후 LCD 수요 전망과 주요 거래선의 수요 충족을 위해 현재 클래스 투입 기준으로 월 12만매인 7라인의 생산능력을 2007년에는 월 18만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

또 2007년에는 8세대 라인의 본격 양산과 함께 46인치, 52인치 등을 내놓으며 향후 대형 TV 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한편, 디스플레이서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1/4분기 발표 전망을 수정해 40인치 LCD TV의 수요가 2008년 1000만대를 돌파하고 2010년까지 약 50%의 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. (서울=연합뉴스)
<저작권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7/26>